

'더현대 광주' 부지 공공기여 타결 임박



대규모 방직공장터 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협상이 진행중인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터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조정협의회 회의 5000억대 산정 교감...市, 내년 6월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정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대규모 방직공장터 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조정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1차 회의를 연다. 협의회는 그동안 사업자가 일반 공업 지역인 방직공장터를 상업·주거 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주고받는 공공기여 비율과 금액을 논의해왔다. 광주시와 사업자 휴먼스홀딩스PFV 측은 50% 초반대 비율로 산정하는데 교감을 나눴다. 호텔(49층), 복합쇼핑몰(더현대) 등 광주시에 서 요구한 시설이 들어서는 구역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을 낮추고, 공동주택(4186세대) 등 수익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해 나온 평균값이다. 공공기여금은 부지 면적(29만6340㎡·8만9642평), 우수한 도심 입지 조건 등을 반영해 5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깊어지면서 공공기여 비율을 50%로 특정한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광주시 지침상 범위(40~60%)가 지나치게 넓어 불합리하다는 반응이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 모두에서 나왔다.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협상 비율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따라왔다. 비율, 금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만큼 다음 주 회의에서 협상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협상조정협의회에는 광주시와 사업자 측이 아닌 외부 위원도 포함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휴먼스홀딩스PFV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공장 건축물 보존, 광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호텔·복합쇼핑몰·업무시설 배치 등 공공적으로 기여하게 될 부분을 설명해 공공기여금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치게 된다. 광주시는 이후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변경된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말, 내후년 초 착공할 경우 3~4년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목포에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개청

상담·안전망 구축·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 종합 지원 거점

전남도가 23일 목포 용해동에서 청소년 지원 종합 거점공간인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개청식을 개최했다. 개청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경선 부의장, 신민호·정철·박문욱 도의원, 청소년지도자,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 의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남도립대 학생의 축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환영사, 제막식 및 시설 라운딩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그동안 전남여성가족

단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했다. 이 때문에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분산 배치돼 청소년 종합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자기개발 등 청소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설계 공모 등을 시작으로 2년간 공사 끝에 지난 8월 준공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54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3101㎡, 연면적 1987㎡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은 ▲1층 공영장, 학교밖 전용공간(복

합문화공간·학습공간 등) ▲2층 상담센터, 활동센터, 학교밖센터, 상담실 ▲3층 청소년 일시보호소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청소년미래재단은 분산된 청소년 지원시설의 불편을 해소해 통합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7월 전국 최초 '청소년 행복성장 지원 혁신지구'를 선포해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청소년이 기쁘고 운영하는 '2023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를 지난 9월 전남도 동부청사(순천)에서 개최하는 등 청소년 행복시대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진짜 여론조사, 가짜 여론조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3〉 김민수 KIR-코리아정보리서치 대표 광주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요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심심찮게 여론조사를 접하게 된다. 선거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우리나라는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될 수 있고,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한 후 발표하고 있다. 부정확한 가짜여론조사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일까? 내 생각과 일치한 결과를 볼 때는 과학적인 여론조사라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결과는 가짜 여론조사로 치부하여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여론조사 주체는 여론조사 기관과 응답자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응답지를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선거 여론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화 여론조사'만이 적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면접 조사, 인터넷 조사, 우편 조사 등은 해당 지역 인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어긋난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면 전화 여론조사는 등식이 성립된다. 전화 여론조사 방법 중 핸드폰 조사(무선전화)는 조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상번호'를 통해 연결되며, 유선전화 조사는 해당 지역 국번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만든 랜덤 전화번호이다.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 속칭 '안심번호'로 불리기도 한다.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 응답률, 질문지 등을 등록해 공개한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응답률 해석이다. 예를 들어 표본 1000명 조사 결과에서 응답률 5%라고 하면 50명이 응답한 조사라고 편향하는 경우가 그렇다. 응답률 5%는 1000명이 마지막 질문까지 응답을 완료한 경우이고,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2만명 가량을 전화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을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설계가 공정해야 한다. 인 구분포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구성해야 하고, 질문지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응답자의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무선 전화조사의 폐해가 있었다. 일정 선거꾼들이 핸드폰 번호를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투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위법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진짜 여론조사마저 가짜 여론조사로 불신하게 하는 동인을 제공한 셈이다. 진짜 여론조사는 우리 모두에게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과학적 조사, 언론사의 객관적인 보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솔직한 응대와 불법 사례 신고 등 공명선거 의식이 요구된다.

전남도 자율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강소기업 16곳 지원...수출 전년비 24%↑·4800만달러 신규 계약

전남도의 지원을 받은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판로 개척에 나서 대규모 신규 계약을 따내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전남도로부터 글로벌 마케팅 홍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경영 및 품질 혁신 등과 관련 기업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받고 있다. 전남도 지원 전남테크노파크의 중간 점검 결과 자율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업 16개 사의 올해 수출액 규모는 총 2억1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그 가운데 약 4800만 달러는 올해 신규 계

약한 성과였다. 특히 ㈜픽스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호주 마인트랙 터널사에 파형강관 45만 달러를 시작으로 ARTCS와 2025년까지 9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제일은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공정자 동화 설비 270만 달러를 신규로 수출해 납품하고 있다. 주식회사 지알캠은 아우디의 공정감사 진행을 통해 개발품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글로벌 강소기업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